



시강원 명패(전면), 국립고궁박물관(창덕18937), 사진 2.

시강원 명패(후면), 국립고궁박물관(창덕18937), 사진 3.

임금의 명으로 관원을 부르다

# 패초 牌招

이강욱 은대학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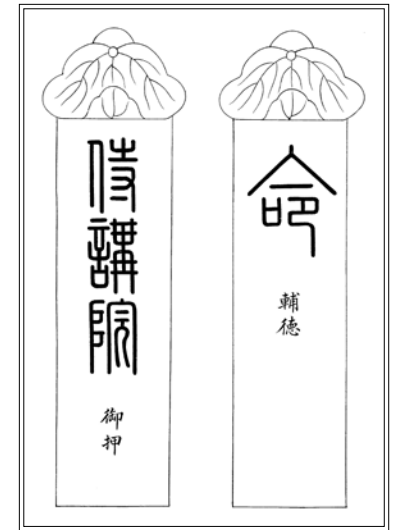
조선 시대의 3대 관찬 사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을 꼽는다. 이들 사료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어휘 하나를 뽑는다면 아마도 ‘패초(牌招)’가 아닐까 싶다. 3대 관찬 사료 중에서도 가장 책 수가 많은 『승정원일기』에서 ‘牌招’를 검색해 보면 약 18만 건 정도가 나온다. 『승정원일기』는 한 달이나 반 달 치의 기사를 묶어서 1책으로 편찬하였고 현재 3,243책이 남아 있으므로, 대략 계산해 봐도 하루에 2건 씩은 ‘패초’가 기록된 셈이다.

“대교(待敎) 박우원(朴祐源)은 휴가 기한이 지났으므로 즉시 패초(牌招)하여 입직(入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20일

위의 사례는 승정원의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상암(李商巖)이 정조에게 아뢴 것으로, 예문관의 정8품 대교 박우원을 불러들여 숙직 근무하게 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 패초는 이처럼 왕명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대궐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사료에 기록된 패초는 승정원의 승지가 요청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는 기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것은 승정원이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기관이고, 패초는 왕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었다.

승정원이 국왕의 허락을 받아 관원을 패초할 때에는 패초가 왕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관원에게 ‘패(牌)’를 보냈다. 이런 ‘패(牌)’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명패(命牌)로, 당상관 이상 및 당하관 중 옥당(玉堂)·대간(臺諫)·춘방(春坊) 등을 패초할 때 사용하였고, 또 하나는 분패(粉牌)로, 당하관을 패초할 때 사용



명패 『보인부신총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291), 사진 1.

하였다. 승정원의 업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은대편고(銀臺便攷)』에는 명패와 분패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가 나와 있다. 그에 따르면, 명패에는 ‘아무 관직 아무개는 나아 오라.[某官某進來]’라고 적고, 분패에는 ‘전교를 듣고 갈 수 있도록 아무 관직 아무개는 말을 달려 나아 오라.[傳敎聽去次某官走馬進來]’라고 적었다.

[사진 1]은 고종 때 발간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되어 있는 시강원(侍講院)의 관원인 춘방을 패초할 때 사용하던 명패이다. 이 명패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아로 만들고 위에는 연잎 모양을 새겼다. 한쪽 면에는 이 명패를 사용할 관사의 이름인 ‘侍講院’ 3자를 전서(篆書)로 새기고 국왕의 사인(sign)이라 할 수 있는 어압(御押)을 새겼으며, 다른 한쪽 면에는 위에 ‘命’ 자를 새기고 그 아래에 ‘輔德’ 등 패초할 춘방의 관직명을 새겼다. 글자를 새긴 곳에는 모두 붉은색을 입혔다. 춘방을 부를 때면 이 명패에 새겨진 관직명 아래에 해당 춘방

의 이름을 적어서 보냈다.

[사진 2]와 [사진 3]은 세자시강원의 춘방을 패초할 때 사용했던 명패의 실물 사진이다. 이 명패의 한쪽 면에는 ‘侍講院’ 3자와 고종의 어압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命’ 자가 새겨져 있으며, 모두 붉은색으로 입혀져 있다. ‘命’ 자 아래에 관직명이 새겨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춘방을 패초할 때 ‘命’ 자 아래에 패초할 관원의 관직명과 성명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패초는 승정원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명패나 분패를 발급할 때에는 승정원의 정7품 벼슬인 주서(注書)가 패초할 관원의 성명 또는 직명과 성명을 패에 적어 승정원의 사령(使令)에게 나누었다. 그러면 사령이 그 패를 가지고 해당 관원의 집으로 찾아가서 전달하였는데, 이처럼 패의 전달을 책임진 사령을 패사령(牌使令), 명패사령(命牌使令), 지패사령(持牌使令) 등으로 불렀다.

“방금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정사(政事)를 열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병조판서 이연상(李衍祥)을 패초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정원의 패사령인 김수광(金壽光)이 와서 보고하기를, ‘명패를 전달하러 가던 도중에 의정부 권두(權頭)인 장종득(張宗得)이라는 놈이 술에 취해서 싸움을 벌여 심지어 명패를 부러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막중한 명패에 이처럼 전에 없던 변괴가 발생하였으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정관을 부르는 명패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다른 명패를 다시 내 보내기는 하였습니다만, 장종득과 김수광을 형조로 이송하여 엄중히 조사해서 적용할 형률(刑律)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승정원일기』 정조 5년 윤5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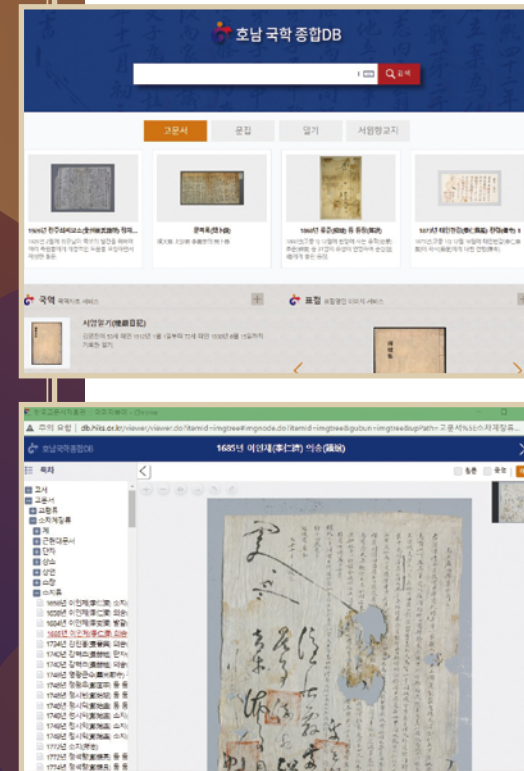
위의 사례는 승정원의 우승지(右承旨) 조시위(趙時偉)가 정조에게 아뢰던 것으로, 명패를 전달하러 가던 승정원의 사령 김수광이 도중에 의정부의 권두인 장종득과 싸움이 붙어 명패가 손상된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정관은 조선 시대에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이조와 병조의 관원을 말한다. 이 일로 김수광은 장(杖)을 친 뒤 풀어주고, 장종득은 90대의 장을 치고 황해도 풍천부(豐川府)에 2년 6개월의 도형(徒刑 징역형)에 처하였다.

패사령으로부터 패를 전달받은 관원은 패사령에게 대궐에 나아갈지의 여부를 밝히고, 자신이 직접 대궐로 나아가서 받은 패를 바쳤다. 이처럼 패를 반납하는 것을 납패(納牌)라고 하였다. 관원이 패초하는 명을 받고 대궐에 나아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패(承牌)라 하고, 패초를 받았으나 명을 어기고 나아가지 않는 것을 위패(違牌)라 하였다.

패초는 국왕의 명으로 관원을 대궐 안으로 불러들이던 제도로, 승정원의 사령이 패초할 관원에게 명패나 분패를 전달하면 그 패를 받은 관원이 대궐 안으로 나아가는 여부를 밝히고 자신이 직접 대궐로 나아가서 받은 패를 반납하였다. 패초는 필요한 관원을 불러들여 임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였으나, 패초하는 명을 따르지 않고 몇 차례쯤 위패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처럼 여기는 풍조도 있어서 한 사람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패초해야 하는 폐단도 있었다. 6

## 호남 국학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는 법

#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 국학 종합DB'를 클릭하세요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인들의 삶과 사상, 지혜가 담긴 호남 국학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증·기탁된 자료 중 목록 정리가 완료된 고문헌을 위주로 상세한 해제를 하고, 원문텍스트를 정서하여 일반 대중 및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DB(<http://db.hiks.or.kr>)를 구축했다.

호남 국학 종합DB 사이트에 탑재된 고문헌은 크게 고서와 고문서로 나뉜다. 고문서는 각각 유형별, 소장처별, 지역별, 시기별로 분류되어 있어 원하는 자료별로 검색할 수 있다. 고서는 호남근현대문집, 일기, 서원향교지, 국역, 표점 등 주제별로 필요한 콘텐츠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고서, 번역서, 표점본 등의 경우 각 권별로 제목에 맞게 원문 이미지가 연계되어 있어 각 내용별로 이미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국학의 발전과 보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학 자료 DB 구축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존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문화를 창달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국학종합 DB  
<http://db.hiks.or.kr>

